

양 · 계 · 메 · 모

월 양 계

5월 1호

- ◎ 계란가격이 지난달 6일 개당 20원의 DC를 줄이는 현실화를 단행하였다. 계란유통이 너무 무질서하게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과거에도 몇 차례 현실화를 단행했으나 유통상인들의 반발과 농가들의 덤핑 등으로 DC폭만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은 계란유통 상인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취해진 조치라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가는 모습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성공 여하에 따라 다음에도 거품을 줄이는 작업이 또 진행될 것을 시사하면서 계란 유통업계에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불법종계·부화장 고발 센터가 지난달 본회 사무실에 설치되었다. 고발센터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종계·부화장을 색출하여 척결하고, 질병을 막아 우량한 초생추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양계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계인들 스스로 불법 종계·부화장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 ◎ 한미 FTA가 지난달 2일 타결되면서 양계업계는 물론 축산업계가 차후 진행될 상황변화 분석은 물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타결에 따라 우선 피해액이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정확하게 관측되어야 하지만 농가들로서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사육수수 조절, 안전성 확보 등)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된 후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양계산업이 이제는 고병원성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소 평온함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질병들이 여전히 농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본회에서는 이달 세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질병세미나를 실시한다. 8일은 경기도 안양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10일은 대전 충남대 KT&G농업생명공학관에서, 15일은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각각 개최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양계질병시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동경로및 농가방역은 물론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사용에 따른 관리사항, 마이코플라스마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